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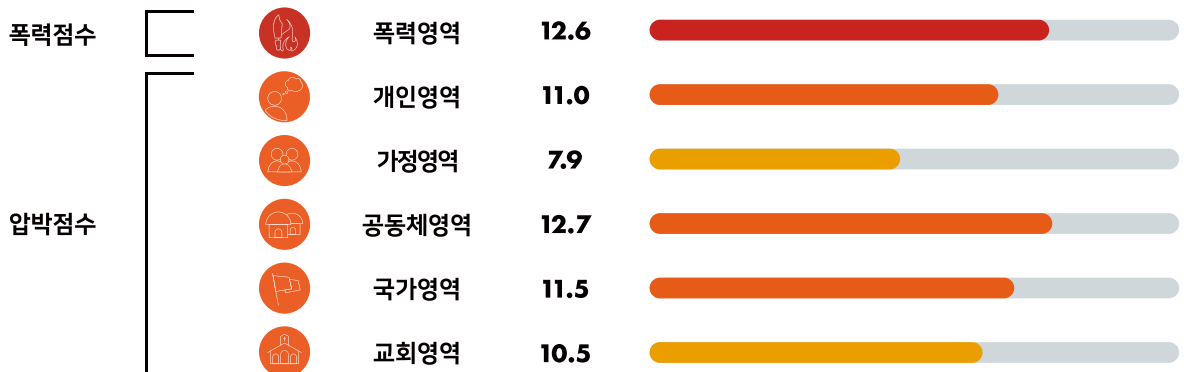
콜롬비아 (COLOMBIA)

기독교 박해지수
46위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교회 지도자들은 세력을 넓히는 범죄 조직의 위협과 폭력 때문에 협박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며, 심지어 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은 특히 국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게릴라와 범죄 조직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러한 폭력의 주된 원인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활동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설교를 통해 부패와 폭력을 비난하고, 인권과 환경권을 주장하는 일, 청소년 사역(범죄 조직 출신 개종자들을 포함), 평화 운동, 인도적 지원 등이 있다. 여러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기독교 선교사와 개종자들에 대한 심각한 반발이 존재하며, 그 결과 이들은 투옥, 신체적 학대, 위협과 괴롭힘, 기본권 박탈에 직면하고 있다.

세속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성경에 근거한 의견에 대한 관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생명, 가족, 결혼,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할 때, 때로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 발언을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길을 선택한다.

콜롬비아 (COLOMBIA)

국가 정보

지도자 : 구스타보 프란시스코 페트로 우레고 대통령

인구 : 52,341,000명

기독교인 수 : 49,693,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9,693,000	94.9
불가지론	1,525,000	2.9
그 외 기타 종교	512,700	1.0
민속종교	337,000	0.6

출처²

콜롬비아는 수십 년 동안 부패하고 취약한 법 체계 아래에서 고통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불법 마약·무기·인신매매 거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범죄 네트워크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범죄 조직이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면서, 이들이 전체 지역을 지배하고 그 과정에서 평화를 옹호하고 범죄 활동에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기가 쉬워졌다(FoRB in Full, 2023년 11월 11일). 이러한 유형의 위협 행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자주 미치곤 한다(Caracol, 2022년 9월 4일). 교회가 침입 절도와 파손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누도 데 파라미요와 카타툼보와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무장 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메시지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감시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콜롬비아 2023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치안 부대가 범죄 조직의 활동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사법 제도가 과부하와 비효율에 시달리고 있으며, 판사·검사·증인에 대한 부패와 협박이 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2년 6월, 좌파 정당들의 연합체인 역사적 동맹 소속의 구스타보 페트로가 2022~2026년 임기의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구스타보 페트로의 54쪽 분량 정부 계획에는 종교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종교적·영적 선택에 따라 예배의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콜롬비아의 주요 기독교 교파는 로마 가톨릭교회이며, WCD 2024 추정에 따르면 전체 기독교인의 88.8%를 차지한다. 이른바 ‘메가처치’로 불리는 수천 명 규모의 회중을 가진 교회들이 여러 대도시에서 자리 잡으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계속 성장하고 눈에 띄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 지도자들은 교육, 가장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기본 생필품 제공 등 사회의 가난한 계층이 많이 모여 있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콜롬비아 주교회의는 나라 전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촉구해 왔다. 예를 들어 교회는 이주민 보호를 위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양국 관계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으며, 평화를 위한 지속적

¹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² 기타 종교로는 중국 민속 종교, 신흥 종교, 시크교, 영혼주의자, 도교, 유교, 자이나교, 신토, 조로아스터교 등이 포함된다.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인 호소를 이어 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 네트워크와 단체들은 전국 각지 공동체에서 사회적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진실 규명·공존·재발 방지 위원회의 보고서는 사회적 결속을 회복하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교회 단체들이 가진 중재 역량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의 권고 사항 가운데에는, 비록 그러한 활동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특별한 위험에 노출시킨다 할지라도, 나라의 교회들과 신앙 공동체들이 평화의 문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Comisi n de la Verdad, 2022년 6월).

여성 및 소녀, 특히 성폭력에 대한 폭력은 또 다른 우려 요인이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이 존재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가려지고 있다. 콜롬비아 여러 지역에서는 청소년(주로 소년들)의 강제 징집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상시적인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분쟁 지역에서는 영토 장악을 위한 고문, 위협, 강압 수단으로 경쟁 집단들이 남성과 소년들에게 성폭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조직적 부패와 범죄: 안티오키아(Antioquia), 아라우카(Arauca), 볼리바르(Bol var), 카케타(Caquet), 카사나레(Casanare), 카우카(Cauca), 세사르(Cesar), 초코(Choc), 코르도바(C rdoba), 과비아레(Guaviare), 메타(Meta), 나리뇨(Nari o), 노르테 데 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 푸투마요(Putumayo), 톨리마(Tolima), 바예 델 카우카(Valle del Cauca), 비차다(Vichada) 등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범죄 조직과 불법 무장 단체들로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압력과 폭력을 겪고 있다.

씨족 억압: 원주민 공동체는 각자의 전통 관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족의 종교적 관행을 버리는 사람들은 박해에 직면한다. 원주민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온 주 가운데에는 카우카, 마그달레나(Magdalena), 세사르, 우일라(Huila), 초코, 보야카(Boyac) 등이 있다.

세속적 불관용: 이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공공 정책

과 사회적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종교나 기독교에 반대하는 이념을 가진 집단들에 의해 조장된다. 세속적 불관용은 전국적으로 존재하지만, 특히 볼리바르, 보고타(Bogot), 안티오키아, 칼다스(Caldas), 리사랄다(Risaralda), 킨디오(Quind o), 나리뇨, 바예(Valle), 카우카, 보야카, 산탄데르(Santander), 쿤디나마르카(Cundinamarca), 톨리마, 우일라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는 고립을 강요받지 않으며, 따라서 점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로마 가톨릭교회이다. 이 범주에 속한 공동체는 마약 카르텔과 조직범죄 집단이 장악한 지역에서 공격 위험에 처해 있다.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는 또한 사회 전반에서 심화되는 종교적 불관용과, 신앙의 공개적 표현이 거부되는 현실과도 싸우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

이 범주는 교단 간 개종자, 원주민 공동체 내 개종자, 게릴라 조직과 범죄 조직 출신 개종자를 포함한다. 특히 원주민 공동체의 맥락에서, 개종자들은 공동체의 다수 신앙 체계를 버렸다는 이유로 괴롭힘, 추방, 공동체 서비스 이용에서의 차별, 그리고 일부 형태의 신체적·심리적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조직범죄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개종자들이 살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들 공동체는 주로 침례교회와 오순절 교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조직범죄 집단이 가하는 압력과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인도주의 활동을 일부에서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들은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이들이 정치 영역에 참여할 경우 세속주의 성향의 압력 단체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일부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자유롭게 사역할 수 없으며, 사역을 시도할 경우 위험에 직면한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조직적 부패와 범죄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잔당, 민족해방군(ELN) 대원들, 마약 카르텔 및 기타 조직화된 무장 단체들은 불법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여러 지역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체계적인 감시, 납치, 협박, 갈취, 강제 이주, 살해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교회 건물에 대한 공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전투원과 무장 세력 구성원들에게 설교하는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일부 기독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은 전국적 파업을 지지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협을 받기도 한다. 범죄 조직들은 이들에게 파업 참여를 강요하며, 이는 그들의 부패한 활동과 불법 사업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범죄 조직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여 범죄에서 손을 뗀 전 구성원들에게 보복을 가한다.

씨족 억압

원주민 공동체 안에서 종교는 문화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오랜 전통 신앙에 반하는 사상의 도입은 위협으로 간주된다. 원주민 개종자들에 대해 현지 당국이 부과하는 처벌에는 구금,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 기본 자원 접근의 차단, 강제 노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세속적 불관용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대한 불관용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언어적 공격과 사회적 적대감, 그리고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세속주의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종종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상충하는 것으로 만든다. 또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나 특정 교회에 대한 친밀성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공직자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려는 압력도 존재한다. 이러한 압박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공공연히 옹호하는 공직자들에게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정치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콜롬비아에서는 무장 단체들에 의한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원주민 및 아프로-콜롬비아계 민족 집단이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부 원주민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원주민 의식과 관습을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압력과 공동체 내 배제, 보건 서비스와 교육 접근에서의 차별을 겪을 수 있다. 갱단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일부 소녀들이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죽음의 위협 아래 '팔려가거나', 값비싼 선물을 미끼로 유혹당하기도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의 두목들이 어린 소녀들의 성적 순결을 원하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진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받음
- 표적 유혹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기독교 남성들은 특히 무장 분쟁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위협과 폭력에 직면해 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들은 갈취와 살해 위협에 노출된다. 불법 무장 단체들은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에게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로, 이들은 납치, 강제 징집,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세뇌와 강제 참여 위험을 안고 있다. 범죄 조직에 맞서 발언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위협에 처한다. 일부 원주민 공동체 안에서는, 개종자들이 압력, 체벌, 배제, 위협, 강제 노동에 직면하기도 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괴롭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가정으로부터의 강제 추방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받음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인신매매
- 폭력 - 살해 / 신체적 / 심리적 / 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46	66
2024	34	68
2023	22	71
2022	30	68
2021	30	67

점수 하락은 주로 폭력 점수의 감소 때문으로, 주요 게릴라 단체들과 정부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었다가 결국 결렬되었던 기간 동안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사례가

더 적게 기록되면서 폭력 점수가 14.1점에서 12.6점으로 떨어진 데에서 비롯된다.

또한 개인·가정·공동체 영역의 점수도 하락했는데, 이는 특히 '씨족 억압(Clan Oppression)'이라는 박해 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더 적게 보고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원주민 공동체 안에서 특정 형태의 기독교가 여전히 거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박해의 역학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따라서 전체 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내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폭력과 불관용의 수준(세속주의 집단과 교단 간 갈등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포함하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를 상황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3월** - 세사르(Cesar):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원주민 지도자들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한 기독교인 네 명에게 전통 관습에 따른 1주일간의 구금 형벌을 내렸다. 구금 기간 중 일부 날에는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위협하기 위해 식사가 줄어든 양으로 제공되었다. 이 기독교인들은 또한 공동체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는데, 땅과 지역이 빈곤해진 원인으로 지목되며 범죄자처럼 취급되고 있다.
- **2024년 4월** - 볼리바르(Bol var): 판사이자 목사인 라미로 플로레스(Ramiro Flores)는 15년 동안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도록 자격이 박탈되었다. 2020년, 그는 두 여성의 결혼을 집전해 달라는 요청을 기독교적 도덕과 종교적 원칙, 그리고 양심상의 개인적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비록 다른 판사를 통해 이들의 결합을 등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공되었지만, 해당 여성 커플은 이를 거부했다. 그 이후 그를 상대로 장기간의 사법 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국가 사법 징계위원회는 파면 및 공직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다.
- **2024년 6월** - 노르테 데 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 라몬 몬테호(Ramón Montejo) 신부는 사목 활동을 수행하러 가던 길에 두 남성에게 칼에 찔려 살해되었다. 몸싸움 끝에 가해자들은 그의 차량으로 그를 치어 넘긴 뒤, 시신을 도로에 버려둔 채 달아났다. 이 신부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구 위원회의 대표였으며, 또한 이 지역의 평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국내 실형(내부)이주 기독교인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2025	6	46	262	121
2024	16	42	100*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نام릭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은 신앙을 사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배척, 괴롭힘, 협박, 각종 제한,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직면한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근거한 의견을 옹호할 경우 이념적 압력 단체들로부터 적대감을 겪을 수 있다. 일부 원주민 공동체나 조직범죄가 장악한 지역에서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일 때 박해를 받기도 한다.

가족 영역

범죄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가 ELN, FARC 잔당 게릴라, 기타 불법 무장 단체들에 의해 세뇌되거나 강제 징집될 위험에 놓여 있다. 이에 반대할 경우, 대개 괴롭힘, 폭력, 가족 구성원과의 장기적인 분리, 공동체로부터의 이주 강요 등으로 이어진다. 원주민 맥락에서 학교는 해당 민족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학생들은 정령신앙(애니미즘)과 관련된 활동에 강제로 참여시키기도 한다. 원주민 학교와 공립 학교 모두에서, 기독교 원칙에 반하는 의무 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공동체 영역

일부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식수, 교육, 의료와 같은 기본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고, 더 넓은 사회와 가족들로부터도 배제되곤 한다. 또한 조상 숭배나 전통 민족 신앙과 관련된 공동체 종교 행사에 금전이나 생산물 등의 형태로 기여할 것을 요구받

는다. 조직범죄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범죄 조직이 갈취성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다. 지불을 거부할 경우 폭력에 노출되고, 강제 징집이나 강제 이주의 위험이 커진다.

국가 영역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종종,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처벌 없이 지나가는데, 이는 원주민 관습이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자치적인 민족·종교 지도자들이 가해자이자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 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들은 원주민 공동체가 자체 사법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법정을 통한 구제를 구하기 어렵다. 다른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이 사실상의 당국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독교인들이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종종 처벌을 받지 않는 이 불법 집단들의 자의적인 통제에 맡겨진 상황이다. 더불어 콜롬비아 사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공개적 표현에 대한 불관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양심에 따른 거부권과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차별주의자”, “반()권리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교회 영역

교회는 범죄 조직, 원주민 지도자, 이념적 압력 단체들의 위협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 일부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기독교 지도자와 그 가족이 괴롭힘의 주요 표적이 되며, 대개 기독교 관련 활동은 금지된다. 범죄 조직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특히 인권·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평화 협정을 이행하며, 코카 재배를 억제하려는 경우, 기독교 지도자와 그 가족이 폭력, 감시, 이동 제한의 가장 빈번한 희생자가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 단체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인신매매, 강제 징집, 강간 등의 표적이 되어 목회자들이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도 한다. 결혼과 가족을 옹호하는 설교, 그리고 교회가 공적 영역에 참여하려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 감시와 비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콜롬비아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콜롬비아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민병대의 표적이 된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 (ICCPR 제18조,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 고용에서 제한을 받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차별을 겪는다 (ICCPR 제25조, 제26조, ICESCR 제6조)
-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거나 전도 활동에 참여할 경우 괴롭힘과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18조, 제19조)

콜롬비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IRFR 2023 콜롬비아 보고서에 따르면, 부카라망가(Bucaramanga)의 한 경찰관이자 라베이안 사탄주의 (LaVeyan Satanism) 신자는 라베이안 성서(LaVeyan Bible)에 신자들이 머리를 기르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있다며, 그에 따라 머리를 길게 기를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월, 부카라망가 제10행정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항상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관련 복장 규정을 근거로 이 소송을 기각했다. (...)

페트로 대통령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여러 차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을 나치 정권에 비유했다. 콜롬비아 유대인 공동체 연합(Confederation of Jewish Communities in Colombia, CJCC)은 페트로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나치 정권과의 비교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CJCC는 소셜 미디어에서 유대인 추방을 요구하는 주장과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정체불명의 이들이 이스라엘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인근을 포함해 보고타(Bogotá) 시내 여러 곳에 반유대주의 낙서를 남겼다. 10월 17일, 두 사람이 보고타의 아부 바크르 알시디크 모스크(Abou Bakr Alsiddiq Mosque)에 침입을 시도해 건물 외벽에 경미한 피해를 입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무슬림들에게 그들이 “여기에는 문제만 일으키러 온 것”이라며 이 나라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오픈도어의 콜롬비아 사역

오픈도어는 콜롬비아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다음과 같은 사역을 통해 돕고 있다:

- 성경 훈련 / 훈련 자료 배포 / 성경 자료 개발
- 트라우마 상담
- 민족 교육에 대한 자문
- 공동체 개발: 성경적 세계관 훈련, 농업 도구 지원, 청지기 정신 교육
- 물리적 인프라 개선
- 생산 활동 프로젝트
- 교육 프로그램(아동 센터 / 장학 지원)
- 박해를 당하는 이들을 위한 긴급 구호 지원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